개교 45주년 기념특집

21세기 경희의

교 수

이 성 호

〈정경대교수·회계학〉

우리 경희의 캠퍼스는 참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 있다. 정말 아름답다. 신록이 우거진 5월의 캠퍼스를 보라. 그 푸르고 싱싱함에 우리들의 마음도 푸르고 싱싱해지는 것 같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경희는 지금부터 커다란 정체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서 경쟁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꿔야 할 것이다. 첨예화되는 경쟁속에서 모든 부문의 세계적 수준을 꿈꾸는 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한 국가만이 모든 종목의 금메달을 석권하겠다는 꿈보다 더 무모한 일이다. 우리가 이룰수 있는 것은 찾아 그것을 발전시키고 세계적 수준으로 이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 학생들 개인에 대한 평가, 학과의 개별적인 평가… 그러한 평가 속에서 우리 경희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려냄수 있을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경희는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적 우위에 서지 못하는 개인 또는 학과는 굳살빼기 후의 모습처럼 줄아드는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경희 전체의 모습은 훨씬 더 날쌔고 힘찬 모습일 것이다.

그 많은 특권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쟁속에서 우리가 얻어낸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쉬움과 불만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대학인으로서의 그 특권들은 아름답고 자랑스럽지 않은가. 학문을 토론하고 인생을 나누며 이상사회를 위하여 고뇌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미래의 대학사회도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그 경쟁을 이겨내고 대학인으로서의 특권도 선별적인 것이므로 경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이고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재단도 그 지원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이 그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연구와 교육의 최고기관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몫에 대한 보상의 방법밖에 없다. 그 구체적 내용은 기여입학일 수도 있고 기업 또는 독지가의 기부금일 수도 있으며 엄청나게 비싼 학생등록금일 수도 있다. 그 재원이 무엇이던 간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최고가 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우리 경희가 가야 하는 길은 자기 살을 베어내는 아픔과 인내의 길이지만 그때 도달하는 우리 경희의 모습은 세계에 우뚝 솟아 문화세계 창조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세계대학으로 발돋움 해야 살아남아

평가는 필요한 것이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평가는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은 우리들을 각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여유보다는 우리 각자가 연구실에서, 도서실에서 책과 씨름해야 하는 긴장된 시간이 훨씬 많아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누리는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21세기의 대학교육은 많은 부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교육시설과 기자재가 첨단적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연구하고 수학하는 교수와 학생들은 우수한 인력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은 기대할 수도 없지만 지원이 있다고 해도 선별적인 것이므로 경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이고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대학의 재단도 그 지원에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이 그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연구와 교육의 최고기관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몫에 대한 보상의 방법밖에 없다. 그 구체적 내용은 기여입학일 수도 있고 기업 또는 독지가의 기부금

학 생

최 용 갑

〈서울캠퍼스 학자추 사무국장〉

올해 학교에서는 '경희45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기획하는 등 나름대로 명문대로의 진입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경희45주년'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우리가 이어나갈 역사를 엿보기는 힘들다.

대학평가인정제를 위시하여 우리는 '창조적 지성으로 진리의 앙심에 따라 사회적 제 가치를 연구'하는 곳이 계량화되고 수치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대학의 미래는 이제 재단에 제언합니다.

재단전입금은 한 개인과 특정집단에 의해 시혜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경희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희의 낙후된 교육환경과 이의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개인이 판단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닌 학내구성원들의 요구와 합의에 의해 재단전입금을 대폭 확충하고, 재단의 특권의식을 과감히 버려 학교발전에 학내구성원의 하나로 동등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당국에 제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술교육학과의 대학은 '보편성'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한다. '보편성'은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란 각 대학 사회의 총량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만들어지는 때가니즘이며 한 개인과 특정한 파벌,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의 욕적과 이념을 공유하며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만 만들어 지는 것이고, 이것이 대학을 지탱해 나가는 힘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희는 재단과 학교당국, 교수, 학생, 직원들의 수직적 관계와 배타적 권위 의식등으로 인해 '분권적이고 배타적인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경희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정체성 찾아나가야 할 경희 미래상

강의실 평수, 교수·학생간의 비율, 실험실습기자재 등으로 대체되고 있고 경희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의 전통을 죽이고 살리는 식의 경쟁으로 바꾸어놓은 대학평가인정제와 지식의 자본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지는 산학협동체제가 마치 대학과 한국사회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지금에 있어 경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 시기의 대학평가인정제의 높은 점수도 아니요, 시혜처럼 던져지는 몇푼의 재단전입금도 아닌 것이다.

학생들이 교수퇴진을 요구로 보름이 넘게 수업거부를 하며 투쟁중에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이때까지 이 사태를 방관만 해 왔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교수임용권에 학생참여가 배제되고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어떠한 의견개진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데에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요구들을 때번 사간만 끌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깨닫고 학교 발전의 의지를 '군중심리'와 비지성적인 태도라는 말로 본질을 흐리는 그것이야말로 각성하여 비지성적인 태도임을 깨닫고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실시요.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며, 현재의 노력과 투쟁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교수님께 제안합니다.

한국대학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수님들의 집단적인 기득권 유지 심리와 권위주의 임은 이미 신문지상과 여러 매체를 통해 회자되어 온지 오래입니다. 교육은 어느 한쪽의 지식이 다른 한쪽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교육의 정상화와 올바른 강의문화정착을 위해 교수평가와 강의평가등에 있어서의 학생참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발전의 한 주체로서 재단과 학교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고 활동해야 합니다.

직 원

임 승 양

〈수원캠퍼스 도서관 사무국장〉

서천군이 학교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8시 30분. 먼저 도서대출 출입증과 학생증, 현금카드 및 교내시설 이용권을 겸한 ID카드로 도서관 입구에 경희학우임을 체크하고는 신문열람대에서 간밤의 뉴스와 스포츠 등의 조간신문을 살펴 본 후,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연일 특별강연되고 있는 '세계석학과의 만남'이라는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용자용 컴퓨터를 통하여 공지사항을 알아보니 오후 2시부터 우주이론에 관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특강이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어릴 때부터 우주과학자가 꿈이었기에 반드시 청강하리라 다짐하고는 지하 1층 음악감상실에서 은은한 커피향과 감미로운 모짜르트를 감상한 후 강의실로 향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다음주에 제출할 리포트를 쓰기 위하여 과실습실에서 LAN으로 연결된 PC로 자료검색을 한 결과 "이미 대출된 도서이므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천구들과 함께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스티븐 박사의 강연을 간명깊게 듣고 3층 세미나실에서 강연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한 후, 정보 공사과에 들러 조금전 검색한 도서를 대출예약한 후, 참고사서에게 레포트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묻의하니까 친절하게도 교내의 자료뿐만 아니라 지방소재 도서관에 있는 최신 외국학술 논문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문헌복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위 내용은 먼 미래가 아닌 불과 몇년후면 가능한 서천군의 대학생활중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며 본 것이다.

몇년후 첨단도서관의 꿈 실현

미래의 경희 도서관은 첫째, 확실한 학술연구 센타의 기능을 다할 것이다. 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같은 책자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CD자료, 영상자료, 마이크로자료, 음반 및 테이프 등 각종 자료를 고루 소장하여 토털전산시스템으로 운용되는 도서관 자료를 교내 어디서든지 LAN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대중 통신망을 통하여 집에서도 자료검색과 FAX복사 등을 통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대학, 국가간 상호협력망을 통한 자료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개별도서관에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출판량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기종 협력망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교내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음향도서실, 영상자료실, CD자료실, 세미나실 및 쾌적한 휴게실공간을 고루 구비한 경희도서관은 각종 발표회, 전시회, 연주회 및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넷째, 경희정신과 교육이념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와 인류평화에 기여하고 경희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수집 등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공공도서관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희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향토문문과 역사자료를 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끄모있는 재정지원과 우수한 전문사서의 육성, 그리고 풍부있고 쾌적한 도서관 공간의 활용 등 정책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도 도서관에 대한 철학과 경험을 고루 갖춘 전문인이 도서관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21세기를 향한 경희의 미래상을 창조하는데 더욱더 주마가편(走馬加鞭)이 될 것이다.

동 문

송 은 규

〈법학6회 전 사무처장〉

우리 경희는 광복과 더불어 태어나 반세기의 나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대전의 전후 극심한 사회혼란 속에서 창학의 깃발을 세워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 좌초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이 연경을 뚫고 오늘의 대경희를 이루었다.

안으로는 새마을 운동을 선도하고 밖으로는 평화운동을 전개하여 국가발전은 물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도 기여한 바 크다.

이제 세계는 국경이 없는 '지구마을'이 되고 있으며, 개방과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경희의 반세기는 성장과 도약의 시대로 '부(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 21세기는 국제경쟁속에서 약자가 도태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희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승자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 경희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미음음 깨끗이 거둬내고 밝은 캠퍼스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교직과 학생은 가일층 더 노력하여 자기경쟁에서 승자가 될 때 경희는 21세기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적자생존 시대 최강의 승자로 부상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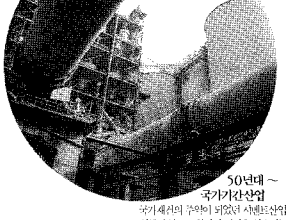
21세기 경희 캠퍼스의 모습은 아마도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교수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도서관의 열람실은 1년 3백6일 쉴틈없이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로 붐빈다. 실험실에서는 최첨단 기자재를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는 교수와 학생, 이들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있다. 학생 전원을 수용하는 기숙사, 그 옆에 자리잡은 강의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대형 TV화면을 통해 토론식 강의를 하고 있다.

학생은 자신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면학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또 교수의 연구활동에 제반시설상·행정적 도상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야말로 학문탐구의 아랍으로서의 세계 일류 학의 모습이 아니고 부족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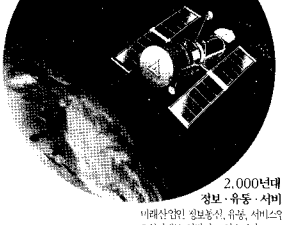
21세기 우리의 모습이 환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렸던 것처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세계속의 경희로 뚜렷실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기간산업
국가재건의 꿈속에 태어났던 시멘트산업과 식품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의 핵심부문인 증권, 단자, 보험 등을 개발, 종합금융 체제로서 경제부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천년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질까요?
그 해답은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미래마인드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혁실에서 꼭 필요했던 시멘트와 식품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들었고, 80년대를 이끌었던 종합금융산업의 기치를 누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압축됩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요.

동양그룹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투자금융·동양생명보험·오리온프리토레이·동양매직·동양해운·동양마트·동양창업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SHL·동양산업기계·동양팩토링·서남재단